

인천협의회

한마음대잔치



인천협의회(회장·유문하)에서는 환경관리인 및 가족의 심신단련과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“한마음대잔치”를 개최하였다.

지난 8월15일 회원과 가족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송도 유원지에서 열린 이날 잔치에는 부부동반·어린이를 위한 게임, 기념품증정과 행운권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.

대전·충남협의회

탈수기선정 및 사용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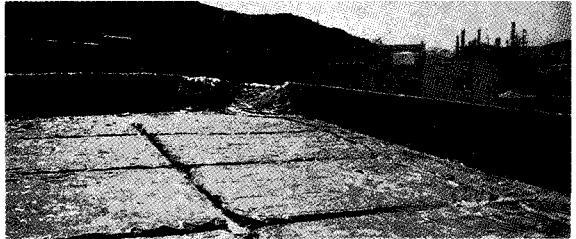


대전·충남협의회(회장·이상운)는 지난 8월 28일 대전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환경관리인 기술교육 세미나를 실시하였다.

이날 세미나는 환경관리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고자 마련되었는데, 대전지방 환경청 조상대계장의 「환경기술표준화」와 유천엔지니어링 문찬용전무이사 「탈수기 선정 및 사용방법」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.

광주·전남협의회

폐기물업체 실태조사



광주·전남협의회(회장·김왕근)는 지난 7월 15·16 양일간 호남지역에 소재하는 5개의 폐기물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.

회장단 6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▲지자체실시 등으로 내고장 폐기물외에는 유입 및 매립 불가 ▲광주·전남지역에서는 3개업소만 폐기물처리 가능 ▲현 전남지역 3개업소중 8월중순 조업예정인 여천환경이 신규업체로써 양호한 조건 갖춤 등을 밝혀냈다.

업체별로 방문, 매립장현장을 확인한 조사팀은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7월 18일 광주지방환경청장, 시 환경보호과장 전남도 환경보호담당자 등 관계자와 이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.

협의회는 호남지역 폐기물업체 실태조사와 관계자와의 협의결과, 해당기관의 무책임한 대안과 법규상 기업체의 처리의무 강조에 지도단속권자로서의 형평을 유지해줄것을 강력히 촉구하고,

- ▲슬릿지발생 공정개선으로 발생의 최소화
- ▲탈수효율증대로 슬릿지 발생량 감소
- ▲슬릿지 소각로설치로 슬릿지부패를 10%내로 낮춤

▲자가매립장에 소각잔재물 매장 등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산업체발생 폐기물처리에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.

한편 동협의회에서는 지난 8월 23일 지난 6월 제19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환경관리장 금강대장을 수상한 이근호 관리인이 재직 중인 한국조폐공사 옥천조폐창을 견학하고 환경오염방지기술을 실시하였다.